

공동체 소식



대림 주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대림 주일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면서, 하느님이 주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가슴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12월 기도지향

- Jason Savage, 박동희(안나) 가정
김민호, 이지혜(로사) 가정

대림시기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림 특강

- 일시 : 12/9(일) 중심미사
주제 : "유배시대, 절망과 희망의 노래"
강사 : 주영길 토마스 신부

판공성사

- 12/9 (일) : 1 ~ 2구역
12/16(일) : 3 ~ 5구역
중심미사 한 시간 전, 그리고 미사 후 성사 보실 수 있습니다.

성탄 및 새해 전례

- 성탄 대축일 밤미사 : 12/24(월) 오후 9시
성탄 대축일 낮미사 : 12/25(화)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1(화) 오전 11시
12/31(화) 송년미사는 없습니다.

기타

- 2013년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1년 구독료는 60불입니다.
성탄 대축일 맞이 제대 꽃 봉헌 받습니다.
전례분과에 문의 바랍니다.
12/13(목) 홀리트리니티 성당 행사 관계로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12/16(일) 중심미사 후, 성탄 전례 회의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작, 예물, 성체, 마침. Values: 93, 220, 178, 174, 95.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시종 복사, 이번주일, 다음주일. Rows for 김태중, 문호진, 차호섭, 차서은.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김수연, 박혜정, 김주연, 최은미.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Rows for 문문주, 김명은, 박희영.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Rows for 김태중, 최은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12월 2일>
미사참례 : 92명
주일헌금 : \$419
교무금 : \$1820



대림 2주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12월 09일

미사시간
주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재무 차호섭 요셉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의 가르침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화해설

수리산
수원교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소재.
안양 수리산은 예로부터 담배를 재배했다해서 '담배골', 골짜기의 생김새가 병목처럼 잘록하게 좁다고 해서 '병목골'이라 불렀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바룩 5,1-9 <하느님께서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주 님 께 서 과 연 저 희 에 게 큰 일 을 하 셧 기 에

저 희 는 못 견 디 게 기 - 빼 헌 나 이 다

-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님께서 돌려 보내실제 저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때에 저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흥겨운 노랫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그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해주셨다.
주님께서 과연 저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저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주님 사로잡힌 저희 겨례를 남뉘 땅 시냇물처럼 돌려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 가던 그들은 곡식 단 들고 올 제 춤추며 돌아오리이다.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제 2 독서 : 필리 1,4-6,8-11 <여러분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 : 루카 3,1-6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세 마

“참된 회개”



복음서들은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시대 팔레스티나에는 여러 형태의 세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의례에 대한 유대교 당국의 요구는 엄하였습니다. 사람이 그 요구들을 온전히 수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려진 절망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세례는 흐르는 강물에 사람의 몸을 잠기게 하여 죄를 씻는 의례였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실제인 사제와 율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민중 안에서 일어난 일종의 신앙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의식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의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전에 요한의 세례 운동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살던 사람이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그 결심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로부터 비롯된 신앙을 왜곡하였습니다. 율사들은 율법 준수를 강요한 나머지, 사람들이 율법준수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사제들은 성전에 바칠 것만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이 제물봉헌에만 마음을 쓰고, 하느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느님은 율법준수와 제물봉헌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그 죄에 애한 대가로 그들에게 벌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준수와 제물봉헌이 있는 것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시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함께 계심을 사는 데에 필요한 생활지침이었습니다. 제물봉헌은 사람이 노동하여 얻은 것을 하느님 앞에 가져와서 하느님의 시선이 그 위에 내려오게 하여, 그분의 시선으로 자기가 얻은 산물(産物)을 보는 상징(象徴)적 의례였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 한 사람만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처리하게 하는 상징적 의례였습니다. 얻은 것이 은혜로우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사와 사제들은 지키고 바칠 것만 강조하다가 율법과 제물봉헌의 참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벌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합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느님을 빙자하여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고 사람을 차별하던 높은 사람들은 낮아지고, 그들로부터 무시당하던 낮은 골짜기, 곧 죄인들은 하느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메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은혜로우신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우심을 실천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웃에게 은혜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저 멀리 내세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은혜로울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마르 10,43)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웃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중물

아이를 망치는 열 가지

텍사스 주의 휴스턴 경찰국에서는 자녀들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10가지 조건을 발표했다.

- (1)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어라. 그러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 (2)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할 것이다.
- (3) 그 어떠한 형태의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말아라. 커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내버려 두어라.
- (4)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다음에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 (5)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6) TV이나 컴퓨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어라.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7)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라. 그러면 이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8)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타락의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9)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 주어라.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되리라.

(10) 아이가 이웃과 대립되는 자제나 마음을 가질 때에는 언제나 아이편이 되어 주어라.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4. 신앙의 해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하느님을 점차 멀리하고 있습니다. 시소개입처럼 하느님을 멀리하면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 쾌락만능주의, 이기주의에 물들어 건강과 쾌락과 돈과 명예에 마음을 주고 있고, 그것들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해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요, 그리스도만이 참 행복의 근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1)임을 신자들이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남에 바탕을 둘 때, 신앙은 그 온전함과 모든 광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믿음은 다시 찾고 키워며 증언해야 할 선물입니다.”

신앙의 해는 또한 더욱 힘차게 사랑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